

데스크 시각



임 동 욱
선임기자 겸 서출취재본부장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민심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호남 민심의 향배가 결국 민주당 대선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보면 아직 구체적 흐름을 형성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 민심은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추석 전까지는 관망할 듯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2058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표본오차 ±2.2%포인트),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32.2%, 이낙연 후보는 30.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의 팽팽한 경쟁 양상을 나타냈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신뢰수준 95%표집오차 ±3.3%포인트),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는 34%, 이낙연 전 대표는 3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

은펜칼럼



김진구
일신중 교감

모임에 가면 전원주택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세컨드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이동식주택, 6평 미만의 농막 등 사례도 다양하다. 평소 꿈꿨던 상상의 설계도와 현실이 잘 조화되어 만족한 분들이 있고, 예상 밖의 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8년 동안 홀로 황토방을 지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크기와 위치의 선택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작게 지어 보자. 미국·일본의 스몰하우스를 소개한 책지도 많고, ‘최소의 집’ 모형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러나 작정하고 짓는 전원주택이니 넓고 크게 짓는다. 광양항에 켜져 있는 거대한 육속 원목들을 한옥의 대들보로 만들기엔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시원한 걸도습과는 달리 실제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다.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에 걱정되는 비용, 구석구석 청소, 빈 공간 치장, 큰 집 관리가 힘들어진다. 앞으로 찾아올 자녀, 손주들을 생각해서 2층까지 올리니 더

기 고



양성관
동강대 교수

금년 여름에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예뻐 날이 많았던 것 같다. 7월 중순 어느 날 오후 진도의 낙조를 본 적이 있다. 해가 바다에 떨어질 무렵 붉게 물든 세방낙조는 함께한 우리는 물론 낙조를 즐기 기 위해 찾은 일행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의 행동이 제한되고 있다. 어쩌면 인간이 지구를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구의 회복만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길이다. 지구가 생명체의 한 부분이고, 지구의 고통이 온 인류의 고통이라는 생각에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신속히 환경오염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

차기 대선과 호남 민심

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에 대해 아직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예비경선과 본경선 과정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강점을 풀어 가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만 호남 민심은 아직 기대감을 보이는 정도라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개혁 및 사이다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서 호남 지지율이 일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백제’ 발언 논란은 본의와는 상관없이 호남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진짜 호남 민심은 추석 직후에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올 추석 연휴는 다음 달 19일~23일인데, 민주당 광주·전남과 전북지역 경선이 바로 며칠 뒤인 25일과 26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호남의 이슈는 차기 대선과 민주당 경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과 전북 지역 경선에서는 지역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호남 민심이 구체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중원인 충청권 경선 이후에 이뤄지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는 전체적인 경선 구도를 뒤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3일에는 2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투크) 결과가 발표되는데, 여기에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흐름이 민주당 경선의 종착역인 경기(10월9일)와 서울(10월10일) 경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예비주자들은 호남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후보부주자들도 호남에서만 반چه जुन다면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정권 재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런 점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에게는 지역 순회 경선 이전에 TV 토론 등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코로나19 이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 정책 담론을 주endo하고, 진영을 넘어 지역과 세대 및 젠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제시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호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 제시도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진영 역량 결집해야

흔히 대선을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들 한다. 이는 대선이 단순한 후보들 간의 경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뜻한다. 민생의 현장을 토대로 시대정신을 꿰뚫고 미래로 나아가는 후보와 정당이 승리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은 민생 경제를 흔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은 내년 대선에서 여권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보수 야당은 이준석 대표 체제라는 신형 엔진을 장착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대선 지형은 늘 어려웠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39만표와 57만 표 차이로 극적인 대선 드라마를 쓰면서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 속에서도 41%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시대적 결집 없이는 진보 진영의 집권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시대를 결집하는 동력은 결국 치열한 성장에 의한 국민과의 공감, 구체적 정책 대안을 통한 미래의 희망으로 집약된다. 호남 민심은 진보 진영의 집권 과정에서 시대적 결집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느 후보가 시대적 결집을 담은 역량을 보일 것인지가 호남 민심의 선택을 이끄는 관건이 될 것이다.

칠선계곡에 집을 지어도

커진다.(생각만큼 많이 찾지도,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집안에서 편히 살아가는지, 집을 모시고 사는지 구분이 안 된다. 본재를 두고 옆에다 조그만 사랑채를 다시 짓는 경우도 있다. 공간이 좁면, 결집도 준다고 했는데 공간이 커지니 채울 것이 많아진다. 그리고 관리와 비용뿐만 아니라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때 매매도 쉽지 않고 재값을 쳐주지도 않는다. 집이 외딴곳에 자리한 경우 밤손님이라도 한번 다녀가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몸이 아프면 많은 것들이 일순간 정지다. 큰 병원이 있는 도화로 옮기게 된다. 뒷세도 힘들게 한다. 특히 가까운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전원주택이 아니라 민원 주택으로 ‘엿가삼’이 된다. 당사자들 중 한 집이 이사를 가야 고통이 끝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밖에도 이런저런 일로 막상 옮기려 하면 덩치가 큰 집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다.

터 잡기도 어렵다. 대지를 고를 때 마지막 결정은 겨울철이 좋다고 한다. 무성하게 우거진 여름철의 풍광을 보았다면 다시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 주변의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도 확인하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일조량이 풍부한 남향의 터라면 더없이 좋으리라.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지리(풍수), 생리(경제), 인심(사회), 산수(자연)를 두루 고려하라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선택이라 망설이면 늦고, 서두르면 속기가 쉽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면 정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황토방을

좋아하면서 옷깃에 흙 물 묻을까 걱정하고, 잔디마당과 텃밭 채소를 가꾸면서 잡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터라도 길지(吉地)가 아니다.

군 생활을 여수 항일임 근처에서 했다. 일출이 유명하다. 남들은 평생 몇 번 보지 못할 일출을 아침마다 보았다. 하지만 훈련, 고참들의 집합 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니 반복되는 일출은 그냥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래서 천불동계곡이나 칠선계곡 옥녀탕 앞에만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야 심안이 편치 않고, 자기 삶의 철학이 없으면 그저 산골짜기에 자리한 집일 뿐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 공간을 자력으로 만들지 못하는 절망의 이 시대. 아파트의 크기나 위치가 부의 상징이고 성공의 징표가 되는 지금 어느 곳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작은 크기의 집을 지으라고 한가한 소리를 했다. 소유는커녕 전월세도 감당할 수 없는 현대판 유랑민의 분노가 치솟고, 자녀의 거처 마련에 흠수저 하나 보태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자괴감이 들끓고 있다. 아등바등하던 단칸방 사글세에서 상하방 전세로, 전세 살이 서러워도 적금 붓고 계 타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희망의 사다리를 끊어 놓고, 평생을 빌려 사는 임대주택의 임대 인세으로 만들어버린 요즘의 주택정책 앞에서 사치스러운 말장난을 한 것 같다.

집은 주인을 안아야 하고 주인은 집에 안겨야 하는데, 집 없는 서민들은 소유할 수도, 안겨 살 수도 없는 마나님 상전이 되었다.

‘지구 살리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

구를 살리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발전소를 늘리며,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은 이제 ‘기후 약당 국가’로 추락했다. 이미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90%를 목표로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모든 자동차 생산설비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지원금을 늘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의 속도를 늦추고 지구를 살리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환경보호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아름다운 자연의 보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이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200년 후에도 원상대로 회복된다고 한다. 땅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100년, 스티로폼이나 알루미늄 캔은 500년이 되어야 자연으로 분해가 된다. 특히 최근 사용량이 증가한 마스크나 물티슈 등은 모두 플라스틱 제품으로, 함부로 버리면 자연 오염의 주범이 된다. 우리가 버리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강물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토양·수질 오염은

인간을 질병이나 죽음으로 몰아간다.

셋째, 기업과 국민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활동을 하여야 한다. 요즘 발생하는 자연재해 앞에는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역대급 대위’ ‘역대급 홍수’ ‘역대급 태풍’ 등 수없는 자연재해가 매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지구가 자정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매년 전례를 찾기 힘든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소각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온실가스가 지구를 덮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택배 물량 증가로 스티로폼이나 비닐 사용도 증가했다. 현재와 같이 생활 쓰레기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 지구의 오존층이 모두 없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포장재를 친환경제품으로 바꾸어야 하고, 국민은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구는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활동이 지구를 살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전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 근본 처방은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지구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세방낙조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운 선물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낙후 지역 국가 재원 집중 투자 절실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등적 재정 분권을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공공투자평가 센터장이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1382조 원)과 영남권(1052조 원)에 전체의 64.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12.5%(474조 원) 호남권은 15.8%(600조 원)에 그쳤다. 정부가 성장 일변도의 중앙집권식 재정 운용 정책을 펴면서 경부축에 재원은 물론 산업·기반시설이 몰린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를 크게 늘려 호남 권 등 낙후 지역에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오 센터장의 주장이다. 수도권 등 경

쟁력을 갖춘 곳은 자체 재원과 민간 자본을, 재정력이 취약한 비수도권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차등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 부처 공모 사업도 낙후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 발전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갖도록 위상을 격상시키고, 국가 재정을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재단하는 기획재정부를 지휘·감독할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가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의 폐해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이나 청년 문제, 난개발과 양극화, 지방 소멸 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를 해소하려면 비수도권 낙후 지역의 경제력과 재정력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재정조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진도 10대 투신 사건 아쉬운 경찰 초동수사

최근 진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녀 중학생 가운데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유족 측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50분께 진도군 진도읍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15) 군과 B(15) 양이 화단으로 투신해 숨졌다.

B양의 유족은 올해 초부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최근까지 B양이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여섯 명에게 욕설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들 동급생 여섯 명과 함께 심한 언쟁을 하면서 위협적인 표현까지 들었으며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진도교육지원청은 조사 결과 언어폭력만 있었다고 보고 화해 조정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어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경미한 정도의 폭력이나 쌍방 폭력 시 처분하는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서면 사과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첫 수사를 맡은 진도경찰 형사과는 사건 당일 유족들을 만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B양의 집을 방문해 B양이 남긴 일곱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유서가 아닌 단순한 메모로 보고 단순 병사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B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진도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B양이 남긴 편지 형식의 유서 중 담임선생에게 남긴 편지에는 ‘선생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학교폭력 때문에 더그려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은 이제라도 B양이 숨진 원인이 과연 학교폭력 때문이었는지 그 정확한 진정의 폭력이나 쌍방 폭력 시 처분하는

無 等 鼓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확진자 수가 한 달 가까이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10만 명을 돌파한 후 또다시 추가로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4개월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선진국에서는 ‘부스’ ‘백신 불평등’을 타깃까지 추진하고 있다. 부스터샷은 1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2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의 1차 백신 접종률은 50%~70%에 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백신 접종에 나선 이스라엘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끝낸 비율이 전체 국민의 6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이 국가들은 서둘러 ‘부스터샷’에 나서

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위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접종이지만, ‘백신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유한 나라로 분류되는 이들 국가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은 세계 평균(26.19%)의 두 배를 넘는다. 반면 아프리카 일부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율은 1~3%로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20대.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 수급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 백신 공유 계획인 이콥스 퍼실리티(COVEX) 등이 가동됐지만, 주요 국가들의 소극적인 호응으로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들의 생명 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 곳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들 선진국에도 언제 또 다시 팬데믹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경제 역력이 있는 국가와 세계기구는 백신을 세계적인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경 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에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